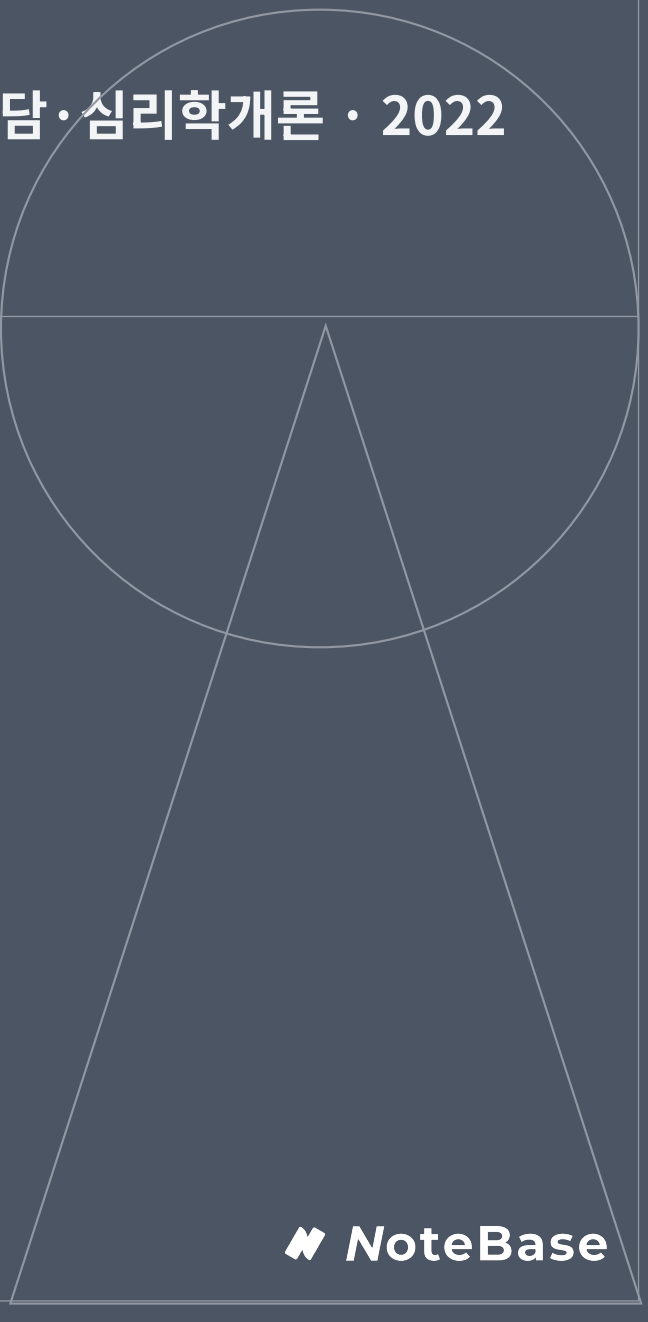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직업상담·심리학개론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직업상담·심리학개론 · 2022

공무원/국가직/9급 · 직업상담·심리학개론 · 2022

문 1.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상담이론은?

◯ 인간은 자기실현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 인간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 상담자는 무조건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솔성을 갖추어야 한다.

① 교류분석상담
② 인간중심상담
③ 정신분석상담
④ 행동주의상담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은 인간의 **자기실현경향성**을 신뢰하며, 상담자의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관계**가 내담자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본다.

NoteBase

구성 요소별 해설

◯ 자기실현경향성: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유지하고 발달시키며 성장하려는 경향을 타고난다. 인간중심상담은 내담자를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스스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이해한다.

◯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자신의 경험에 개방적이고, 현재의 경험을 충실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신뢰하면서 유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이는 결점이나 갈등이 전혀 없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계속 실현해 가는 사람**이다.

◯ 상담자의 무조건적 존중·공감적 이해·진솔성: 무조건적 존중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를 한 사람으로서 수용하는 태도이다. 모든 행동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의 관점에서** 그가 느끼는 감정과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진솔성은 상담자가 전문가라는 가면을 쓰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표현이 일치하는 진실한 태도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내담자가 자신을 탐색하고 수용하며 성장하도록 돕는다.

상담이론의 구별: 교류분석상담은 부모·성인·아동 자아상태와 사람 사이의 교류를, 정신분석상담은 무의식적 갈등을, 행동주의상담은 학습 원리를 통한 행동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제시문의 세 요소는 **인간의 성장 가능성과 이를 촉진하는 상담 관계**를 함께 강조하므로 ② 인간중심상담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 상담이론과 그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프로이트(S. Freud)의 정신분석 상담 - 자유연상, 꿈의 해석 등을 통해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ㄴ. 융(C. Jung)의 분석심리학적 상담 - 관찰 가능한 행동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ㄷ. 벡(A. Beck)의 인지상담 - 사회 속에 더불어 사는 지혜로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상담은 자유연상과 꿈의 해석을 통해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내담자가 억압된 욕구와 갈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보기별 해설

ㄱ. O: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상담은 의식하지 못하는 욕구와 갈등이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자유연상으로 검열 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게 하고, 꿈의 해석으로 숨은 의미를 탐색하여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ㄴ. X: 관찰 가능한 행동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행동주의 상담**의 설명이다. 융의 분석심리학적 상담은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을 탐색하고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자기 전체를 실현하는 개성화 과정을 돕는다.

ㄷ. X: 사회적 관심을 강조한 것은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적 상담**이다. 사회적 관심은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협력의 태도를 뜻한다. 벡의 인지상담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자동적 사고와 역기능적 신념을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돕는다.

바르게 짝지어진 보기는 ㄱ만이므로, ㄱ을 제시한 ①과 연결된다.

NoteBase

문 3. 다음 하렌(V. Harren)의 「의사결정유형검사」 문항과 가장 관계가 깊은 유형은?

◯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한다.
◯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들을 다시 살펴본다.

① 의존적 유형
② 임의적 유형
③ 직관적 유형
④ 합리적 유형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미리 계획하며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 유형**의 특징이다. 느낌이나 타인의 판단보다 **정보와 논리적 검토**를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는다.

구성 요소별 해설

하렌의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앞으로의 상황과 선택의 결과를 고려하여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느낌을 중시하는 직관적 유형이나 타인의 기대와 판단에 의존하는 의존적 유형과 구별된다.

◯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한다': 판단을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는 뜻이다. 순간적인 느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단계적으로 검토**하므로 합리적 유형에 해당한다.

◯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해야 할 일과 상황을 예상하여 준비한다는 뜻이다. **미래를 고려한 계획**은 합리적 유형의 특징이다.

◯ '관련된 정보들을 다시 살펴본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올바른지 확인한다는 뜻이다. **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근거 있는 결정을 내리려는 태도이므로 합리적 유형에 해당한다.

세 문항은 체계적 검토, 사전 계획, 정보 확인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나타내며, ④의 합리적 유형에 대응한다.

NoteBase

문 4. 직업상담 종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결 시기는 내담자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② 종결에 대한 내담자의 정서를 다룰 필요는 없다.

③ 내담자가 종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④ 종결 후 추수상담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상담 종결은 내담자에게 아쉬움이나 불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종결에 대한 정서를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하도록 돕는 것도 종결과정의 과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종결 시기는 **내담자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상담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내담자가 상담 없이 배운 내용을 활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여 종결 시기를 정한다.

② X: 상담관계가 끝날 때 내담자는 성취감과 함께 아쉬움, 상실감, 불안 등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정서를 다룰 필요는 없다'는 '정서를 다룰 필요가 있다'로 고쳐야 한다. 상담자는 **종결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하도록** 도와 내담자가 상담관계의 마무리를 받아들이게 한다.

③ O: 내담자가 종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종결을 미리 알리고 상담에서 얻은 변화와 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용할 대처 방법을 점검한다. 이는 내담자가 **상담에서 배운 것을 일상에서 스스로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④ O: 종결 후에도 필요할 때 추수상담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추수상담은 **종결 후 변화의 유지와 적응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기회이다. 내담자와 추수상담의 가능성 및 이용 방법을 논의해 둘 수 있다.

NoteBase

문 5. 투사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동주의적 접근을 따르는 상담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② 동일한 자극에 대해 수검자마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

③ 수검자에게 비구조화된 자극을 제시하여 반응을 유도한다.

④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서 직업상담 현장에서 많이 활용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투사검사는 자유로운 반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검사자의 판단이 개입할 수 있어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에 한계**가 지적된다. 이를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 직업상담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검사라고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행동주의적 접근은 **관찰 가능한 행동과 그 행동을 유발·유지하는 환경 조건**을 중시한다. 따라서 모호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내면의 욕구나 갈등을 탐색하는 투사검사보다 행동관찰과 행동의 선행사건·결과 분석 등을 주로 활용한다.

② O: 투사검사에서는 수검자가 자신의 경험, 욕구, 감정 등을 바탕으로 자극에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같은 자극에도 개인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그 차이를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자료로 삼는다.

③ O: 투사검사는 **모호하고 비구조화된 자극**을 제시하고 수검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반응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잉크반점을 보여 주고 무엇처럼 보이는지 말하게 하면, 정해진 답을 고르는 대신 수검자가 스스로 자극을 해석하게 된다.

④ X: 신뢰도는 측정 결과의 일관성을, 타당도는 측정하려는 특성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정도를 뜻한다. 투사검사는 자유로운 반응의 채점·해석에 검사자의 판단이 개입할 수 있어 **채점·해석의 표준화와 신뢰도·타당도 확보에 한계**가 지적된다. 검사와 채점 체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투사검사 전반을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 직업상담 현장에서 많이 활용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NoteBase

문 6.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어기제는?

자신의 위협적인 충동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그 충동을 위장하는 것

① 부인(denial)
② 투사(projection)
③ 퇴행(regression)
④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동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려** 자신의 충동을 감추는 방어기제가 투사이다.

공통 해설

투사(projection)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충동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감정이나 충동으로 여기는** 방어기제이다.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자신의 내적 충동을 타인의 것으로 돌려 그 충동에서 오는 불안을 줄인다. 지문의 '자신의 위협적인 충동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림'은 이러한 투사의 작용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상대를 미워하는 감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면서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고 여기는 경우이다. 감정의 출발점은 자신에게 있지만, 이를 상대의 감정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투사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7. 다음에서 설명하는 타당도는?

◯ 외적 준거 점수와 해당 검사 점수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타당도를 검증한다.
◯ 현재 타당성을 인정받는 검사와 해당 검사의 상관분석으로 타당도를 입증한다.

①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②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③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
④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현재 타당성을 인정받는 검사를 준거로 삼아 두 검사 점수의 상관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타당도**의 검증 방법이다.

공통 해설

외적 준거는 검증하려는 검사 밖에서 얻는 비교 기준이다. 공인타당도는 검사 점수가 **비슷한 시점에 측정한 외적 준거 점수**와 얼마나 관련되는지 확인하는 준거타당도의 한 유형이다. 같은 특성을 측정하는 기존 검사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있다면 그 검사 점수를 비교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문에서 현재 타당성을 인정받는 검사는 외적 준거의 역할을 한다. 해당 검사와 기존 검사 점수의 상관을 분석하여, 해당 검사가 현재의 특성을 타당하게 측정한다는 근거를 얻으려는 것이므로 공인타당도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반두라(A. Bandura)가 제시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원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유전자
② 대리경험
③ 언어적 설득
④ 성취경험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유전자는 반두라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네 가지 원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원천들은 과제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하는 경험과 정보에 해당한다.

개념 구분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 반두라는 그 원천으로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정서적 상태를 제시했다.

성취경험: **자신이 직접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다. 이전에 해냈다는 경험이 이후에도 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대리경험: **다른 사람이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얻는 경험이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언어적 설득: 격려나 피드백을 통해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직접 성공하거나 타인의 수행을 관찰하는 것과 달리 **말로 전달되는 평가와 격려**가 근거가 된다.

생리적·정서적 상태: 과제 수행 상황에서 느끼는 긴장, 피로, 불안 등의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준다.

유전자: 유전 정보를 담는 생물학적 요소로, 위와 같은 **자기효능감 판단에 쓰이는 네 가지 정보 원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유전적 요인이 인간의 능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반두라가 제시한 원천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NoteBase

문 9. 다음에서 설명하는 직업상담의 일반적 목표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과 적성, 기능, 역할이 다양하므로 자기의 가치관, 능력, 성격, 적성, 흥미, 신체적 특성 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① 자신에 대한 이해 증진
②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
③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증진
④ 정보탐색 및 활용능력의 함양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치관·능력·성격·적성·흥미·신체적 특성은 모두 **자기 자신의 특성**이다. 이를 올바르게 파악하도록 돕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 증진'에 해당한다.

공통 해설

'자신에 대한 이해 증진'은 내담자가 자신의 가치관, 능력, 성격, 적성, 흥미, 신체적 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직업상담의 목표이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잘하며, 어떤 활동에 관심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문에서 직업마다 요구되는 능력과 역할이 다양하다는 내용은 자기 이해가 필요한 배경이다. 목표를 구별하는 기준은 **상담을 통해 직접 이해하거나 향상하려는 대상**이며, 이 지문은 자기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다. 직업세계 자체를 이해하거나, 대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거나,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직접적인 설명 대상은 아니므로 '자신에 대한 이해 증진'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0. 다음에 제시된 직업상담의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중재/개입
(나) 문제의 평가/진단
(다) 목표설정
(라) 종결을 위한 평가
(마) 상담자 – 내담자 관계 형성

① (가) → (나) → (마) → (다) → (라)
② (나) → (마) → (가) → (다) → (라)
③ (다) → (마) → (나) → (가) → (라)
④ (마) → (나) → (다) → (가) → (라)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내담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려면 먼저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문제를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맞춰 **목표를 정하고 개입**하며, 마지막에는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종결을 판단한다.

올바른 순서

(마) → (나) → (다) → (가) → (라)

(마) 상담자 – 내담자 관계 형성: 상담자는 공감과 수용을 통해 내담자와 신뢰를 쌓는다. 내담자가 자신의 진로 고민과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문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나) 문제의 평가/진단: 면담과 필요한 검사 등을 통해 내담자의 직업 관련 어려움, 흥미·적성, 주변 여건을 파악한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한 결과가 **상담 목표를 정하는 근거**가 된다.

(다) 목표설정: 평가한 문제를 바탕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에서 이루려는 변화를 구체화한다. 목표가 있어야 **개입의 방향과 성과를 판단할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중재/개입보다 앞선다.

(가) 중재/개입: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상담 방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업정보 부족이 문제라면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도록 돕는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토대로 상담의 성과를 평가한다.

(라) 종결을 위한 평가: 개입 후 내담자의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고 **설정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상담을 통해 나타난 변화와 남은 과제를 검토하여 종결 여부를 판단한다.

NoteBase

문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력개발 단계는?

◯ 직무와 조직의 규칙과 규범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 자신이 맡은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고, 조직의 규칙과 규범, 분위기를 알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① 직업 선택기
② 경력 초기
③ 경력 중기
④ 경력 후기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맡은 업무를 파악하고 조직의 규칙·규범과 분위기를 익히는 것은 **조직 진입 후 적응**이라는 경력 초기의 과업이다.

공통 해설

경력 초기는 직업을 선택해 조직에 들어온 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배우고 조직 구성원으로 적응해 가는 단계이다. 이때는 **직무와 조직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다. 지문의 '맡은 업무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설명은 직무 학습을, '조직의 규칙과 규범, 분위기를 알고 적응'한다는 설명은 조직생활에 대한 적응을 뜻하므로 경력 초기에 해당한다.

구분 기준은 경력의 어느 시점에서 수행하는 과업인가이다. 직업 선택기는 어떤 직업에 진입할지를 정하는 시기인 반면, 지문은 이미 업무를 맡고 조직에 들어온 상황을 전제한다. 경력 중기·후기는 경력을 쌓은 이후의 단계이므로, 조직 진입 후 기본적인 업무와 규범을 배우는 데 초점을 둔 지문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2. 수퍼(D. Super)의 진로 발달 이론과 가장 관련이 높은 진로상담 도구는?

① 직업카드분류(occupational card sort)

② 직업흥미검사(vocational interest inventory)

③ 생애진로무지개(life career rainbow)

④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생애진로무지개는 진로를 전 생애에 걸친 발달 과정으로 보고, 학생·직업인·부모 등 **여러 생애역할과 그 변화**를 함께 나타낸다. 이는 수퍼의 **생애진로발달 관점**을 직접 반영한다.

선지별 해설

수퍼는 진로를 한 번의 직업 선택으로 보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면서 여러 생활영역의 역할이 서로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보았다. 각 도구가 무엇을 탐색하거나 표현하는지를 이 관점과 비교한다.

① 직업카드분류: 직업명이 적힌 카드를 선호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직업에 대한 흥미와 선호**를 탐색한다. 관심 있는 직업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두므로, 생애 전반의 역할 변화를 나타내는 도구와는 구별된다.

② 직업흥미검사: 직업이나 활동에 대한 반응을 통해 개인이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고 관련 직업을 탐색하도록 돕는다. 흥미의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 중심이며, 여러 생애역할의 관계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직접 도식화하는 도구는 아니다.

③ 생애진로무지개: **생애기간과 생애공간**을 함께 나타낸다. 생애기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로발달을, 생애공간은 학생·직업인·부모·시민 등 여러 역할이 이루어지는 생활영역을 뜻한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시기에 따라 각 역할의 비중과 중요성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므로 수퍼의 이론과 직접 연결된다.

④ 진로사고검사: 진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부정적·역기능적 사고**를 파악한다. 인지정보처리 접근과 관련된 검사로, 생애역할의 발달보다는 진로 결정 과정에서의 사고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둔다.

흥미·선호나 의사결정의 장애를 탐색하는 다른 도구들과 비교할 때, 수퍼의 전 생애 발달과 다양한 역할의 관계를 직접 표현하는 도구는 ③ 생애진로무지개이다.

NoteBase

문 13. 다음과 같이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 우연한 사건이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탐색하여 잠재된 기회를 더 잘 활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 우연한 사건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은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감수이다.

① 로우(A. Roe)
② 사비카스(M. Savickas)
③ 크롬볼츠(J. Krumboltz)
④ 매슬로우(A. Maslow)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우연한 사건을 진로의 기회로 활용하고 호기심·인내심·융통성·낙관성·위험감수를 기르도록 돕는 것은 크롬볼츠의 **계획된 우연 이론**이다.

공통 해설

크롬볼츠의 계획된 우연 이론은 예기치 않은 사건을 학습과 진로 발달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본다.
상담에서는 우연한 사건이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살펴 내담자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하도록 돕는다.
핵심은 **탐색과 행동으로 우연한 기회를 만들고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다섯 기술은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감수이다. 호기심은 새로운 학습 기회를 탐색하는 태도, 인내심은 좌절에도 노력을 지속하는 태도, 융통성은 태도와 상황을 변화시키는 태도이다. 낙관성은 새로운 기회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는 태도이며, 위험감수는 결과가 불확실해도 행동하는 태도이다. 지문의 우연한 기회 활용과 다섯 기술은 모두 크롬볼츠의 계획된 우연 이론을 가리킨다.

NoteBase

문 14. 상담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이중관계는 피해야 한다.

② 상담내용은 예외 없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충분히 훈련받지 않은 상담 기법의 적용은 삼가야 한다.

④ 상담절차, 상담관계, 상담료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상담내용의 비밀보장은 기본 원칙이지만 **예외 없는 의무는 아니다**. 내담자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법령에 따른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중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관계 외에 사적·경제적 관계 등 다른 관계를 함께 맺는 것이다. 역할과 이해관계가 겹치면 **상담자의 객관적 판단이 흐려지거나 내담자가 이용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한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내담자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② X: 비밀보장은 내담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원칙이지만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다**. 내담자나 타인을 심각하고 예견 가능한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거나 법령상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예외 없이'는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정당한 예외가 있다'로 고쳐야 한다.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고, 비밀보장의 한계는 상담 초기에 안내한다.

③ O: 상담자는 교육·훈련과 경험을 통해 확보한 **전문적 능력의 범위 안에서** 상담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충분히 익히지 않은 기법을 적용하면 내담자에게 부적절한 개입을 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필요한 훈련과 지도·감독을 받아 역량을 갖춘 뒤 적용해야 한다.

④ O: 상담절차, 상담관계의 성격, 상담료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내담자가 상담의 조건과 자신의 권리·책임을 이해해야 상담에 참여하거나 계속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NoteBase

문 15. 직업상담에서 심리검사 활용의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가설의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② 내담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선택한다.

④ 해석지침이 있으면 누구라도 심리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해석지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심리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검사의 실시·채점·해석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훈련을 갖춘 사람**이 사용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심리검사 결과에는 측정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검사만으로 내담자의 모든 특성을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석은 **확정적인 단정이 아니라 가설**로 제시하고, 면담이나 관찰에서 얻은 정보와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O: 검사 해석의 목적은 내담자가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도록 돕는 데 있다. 결과를 내담자의 잘못이나 결함으로 몰아 비난하면 자기이해를 방해하고 상담관계를 해칠 수 있으므로, **내담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③ O: 모든 검사가 모든 상담 목적과 내담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검사가 측정하는 특성, 신뢰도와 타당도, 규준이 적용되는 집단 등을 살펴 **상담 목적과 내담자의 특성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고, 결과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④ X: 해석지침은 검사 사용을 돕는 자료일 뿐, 사용자의 전문성을 대신하지 못한다. 심리검사를 적절히 실시·채점하고 결과의 의미와 한계를 판단하려면 **해당 검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훈련**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해석지침이 있으면 누구라도'가 아니라 '해당 검사의 사용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고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6. 갓프레드슨(L. Gottfredson)의 직업포부 발달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타협 지향성

② 성역할 지향성

③ 힘과 크기 지향성

④ 사회적 가치 지향성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타협'은 원하는 직업을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울 때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며, 직업포부 발달단계의 이름이 아니다. 네 번째 발달단계는 개인의 흥미·가치·능력을 고려하는 **내적·고유한 자아 지향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타협은 직업을 얻을 기회나 교육·훈련 여건 등의 제약 때문에 선호하는 직업을 실현하기 어려울 때, **실현 가능한 직업 대안으로 포부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갓프레드슨의 이론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네 가지 직업포부 발달단계 중 하나는 아니다. 발달단계는 힘과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고유한 자아 지향성으로 구분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신의 흥미·가치·능력에 맞는 직업 분야를 탐색한다.

② O: 성역할 지향성은 대체로 6~8세에 나타나는 두 번째 단계이다. 아동은 직업을 남성적·여성적 역할로 구분하고, **자신의 성역할 자아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직업**을 선택 범위에서 제외하기 시작한다. 이는 아동이 지각하는 성역할에 따른 제한을 설명한 것이다.

③ O: 힘과 크기 지향성은 대체로 3~5세에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아동은 사람을 크고 힘이 센 어른과 작고 힘이 약한 아이로 구분하며, **직업을 어른이 수행하는 역할**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④ O: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대체로 9~13세에 나타나는 세 번째 단계이다. 아동은 직업의 **사회적 위신과 지위**에 주목하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지위가 낮다고 보거나 요구되는 능력·노력 수준이 너무 높다고 보는 직업을 선택 범위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는 직업의 공익성보다 사회적으로 평가되는 위신을 뜻한다.

NoteBase

문 17. 다음의 상담전략을 모두 포함하는 진로이론은?

◯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현실화하여 보다 확장된 진로대안 안에서 진로를 선택하도록 돕기
◯ 내담자가 선택 가능한 진로를 제외하게 한 진로장벽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 내담자의 진로 맥락에서 진로 선택을 돕는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돕기

① 사회인지적 진로이론
② 구성주의적 진로이론
③ 인지정보처리이론
④ 진로의사결정이론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은 **자기효능감·결과기대**가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장벽·사회적 지지** 같은 환경 요인을 함께 다룬다. 따라서 개인의 믿음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면서 선택을 막는 요인과 돕는 요인을 살피는 상담전략으로 이어진다.

NoteBase

구성 요소별 해설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은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과 행동 결과에 대한 예상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 환경의 장벽과 지지도 작용한다고 본다. 제시된 세 상담전략은 이러한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을 함께 다룬다.

◯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현실화: 자기효능감은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고, 결과기대는 '그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예상이다. 두 믿음을 실제 경험과 정보에 비추어 검토하면, 막연한 자신감 부족이나 부정적 예상 때문에 **성급히 제외한 진로대안을 다시 탐색**할 수 있다.

◯ 진로장벽의 확인과 평가: 진로장벽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거나 실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다. 내담자가 어떤 장벽 때문에 특정 진로를 제외했는지 확인하고, **실제 제약과 지각된 제약**을 검토하여 대처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는 선택 범위가 개인의 흥미나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관점에 따른다.

◯ 사회적 지지의 확인과 활용: 가족·교사·주변 사람의 격려나 정보 제공 등은 진로 선택과 실행을 돕는 자원이 된다.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진로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지 자원**을 찾아 실제 선택과 행동에 연결하도록 돕는다. 장벽을 평가하는 전략이 방해 요인을 다룬다면, 이 전략은 선택을 촉진하는 환경 요인을 다룬다.

이처럼 자기효능감·결과기대의 조정, 진로장벽의 평가, 사회적 지지의 활용을 함께 설명하는 이론은 ①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이다.

NoteBase

문 18. 아들러(A. Adler)의 개인심리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을 움직이는 중요한 힘은 '우월성 추구'이다.

② 출생 순서가 개인의 성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열등감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④ 어려서부터 형성된 각본을 분석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어려서부터 형성된 '각본'을 분석하는 것은 번의 **교류분석**에 해당한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목표를 추구하는 고유한 방식인 **생활양식**을 탐색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아들러는 인간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더 유능하고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려는 **우월성 추구**를 중요한 동기로 보았다. 이는 반드시 타인을 지배하거나 남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욕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넘어 성장하려는 지향을 뜻한다.

② O: 출생 순서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경험하는 역할, 부모의 기대와 관심 등에 차이를 만들어 성격과 생활양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출생 순서가 성격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가족 내 위치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③ O: 아들러는 누구나 어린 시절의 무력함이나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하므로 **열등감은 보편적**이라고 보았다. 열등감 자체는 병적인 것이 아니며, 부족함을 보완하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열등콤플렉스와 구별해야 한다.

④ X: 어린 시절의 경험과 부모의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형성한 삶의 계획인 '각본'을 분석하는 것은 **번의 교류분석**에 해당한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초기기억과 가족관계 등을 통해 개인의 생활양식과 목표를 이해하고, 잘못된 신념과 행동 방향을 바꾸도록 돕는다. 따라서 '각본을 분석한다'는 표현은 '생활양식을 탐색한다'로 고친다.

NoteBase

문 19.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 일이 자신에게 맞도록 자신을 일에 맞추어나가는 과정에 동원되는 개인의 태도, 능력, 행동
◯ 현재 당면한 진로발달과업, 직업전환, 마음의 상처 등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준비도와 자원을 의미하는 심리적 구인

① 생애주제(life theme)
② 직업적 성격(vocational personality)
③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self-efficacy)
④ 진로적응도(career adaptability)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진로발달과업과 직업전환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와 자원**을 뜻하는 개념이 **진로적응도**이다.

공통 해설

진로적응도(career adaptability)는 현재 당면한 진로발달과업, 직업전환, 진로 과정에서 겪는 마음의 상처 등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준비도와 자원을 뜻한다. 여기서 자원은 일과 자신을 조정하는 과정에 동원하는 태도·능력·행동을 포함한다. 두 설명의 공통 기준은 **진로의 과업과 변화에 대응할 준비와 자원**이다.

첫 번째 설명은 자신을 일에 맞추어 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동원하는지에, 두 번째 설명은 진로의 과업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직업을 옮겨야 할 때 새로운 업무를 배울 준비를 하고 달라진 환경에 맞게 행동을 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진로적응도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심리적 구성개념(psychological constru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가설적 개념이다.
ㄴ. 측정을 위해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ㄷ.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심리적 구성개념은 직접 관찰하는 대상이 아니라 행동과 반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가설적 개념**이다. 이를 측정하려면 어떤 관찰 결과를 지표로 삼을지 정하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보기별 해설

ㄱ. O: 심리적 구성개념은 관찰되는 행동이나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적 개념**이다. 지능이나 불안처럼 개념 자체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검사 수행이나 행동 등의 자료를 통해 그 특성을 추론한다.

ㄴ. O: 추상적인 구성개념을 측정하려면 이를 **관찰·측정 가능한 절차나 지표로 구체화**하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불안을 특정 불안검사의 점수로 측정한다고 정하면, 추상적인 불안 개념을 실제로 측정할 방법이 정해진다.

ㄷ. X: 심리적 구성개념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으며, 관찰 가능한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한다. 불안에 관한 설문 응답이나 손 떨림은 관찰할 수 있지만, 이 지표와 불안이라는 구성개념 자체는 구별해야 한다.

옳은 보기는 ㄱ, ㄴ이며, ③의 조합에 해당한다.

NoteBase